



보도자료

2025.5.30(금)

고상진 빛의혁명 시민본부 행정지원팀장
(010.3654.8525)

법률구조공단노조, 민주당에 서민법률복지강화 정책제안 '국민 기본권 보호위해 공공법률서비스 국가책임 강화하라'

-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(공동본부장 정동영·이학영)는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(위원장 곽은석)으로부터 서민·중산층의 법률복지 강화를 위한 5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받았다.
-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제안 전달식에서 공공법률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구조 정책의 실질적 반영을 목표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정책제안 이유를 밝혔다.
- 이날 정책제안 전달식에는 민주당에서 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 성준후 상근부분부장과 서민중산층살리기위원회 안진걸 위원장이, 법률구조공단 노조 측에서는 곽은석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공단노조 및 전국공공노조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.
- 법률구조공단 노조가 마련한 주요 정책과제는 법률구조공단의 역할 강화, 개인회생·파산 종합지원센터 전국확대, 132 법률상담 콜센터 및 제2법문화교육센터 설치, 국민인권보호 기능 강화, 공단 명의 소송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- 공단 노조는 “이번 정책제안은 실질적인 법률복지 구현과 사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”이라며 “서민을 위한 법률구조는 정치권의 관심과 제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”고 강조했다.
- 성준후 민주당 빛의혁명시민본부 상근부분부장은 “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법률복지 확대는 평소 이재명 후보께서 강조해오신 민생정책의 일환과 궤를 같이 한다”고 화답하

며 “향후 공단노조측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제안한 과제들의 국정과제 선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”고 약속했다.

*사진첨부

